

사 2 맛나는 세상

2026년 5+6월 vol.160

AI의
생산



VS

사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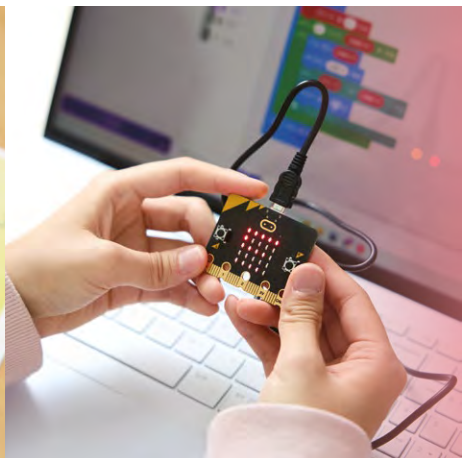
창조



GOOD-NEWS.OR.KR

삽화: 분홍색과 주황색이 대비된 배경 위에 AI의 생산 VS 사람의 창조라는 글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픽셀 글자와 손글씨 표현을 통해 기술과 인간 창작의 대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Contents



04

—— 프롤로그 ——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힘
창조

06

—— 테마 에세이 ——

시스템이 빛은
‘정답’의 감옥을 넘어,
미지의 바다로 나아가는
‘창조’의 향해

10

—— 계속 써 내려간 이야기 ——

제12회 우정선행상 본상
수상단체 인우회

14

—— 청년 봉사 인사이드 ——

호남대학교 수어동아리
‘하늘그림’

18

—— 변화의 온도 ——

대학생 연합 코딩교육봉사
동아리 ‘코드코치’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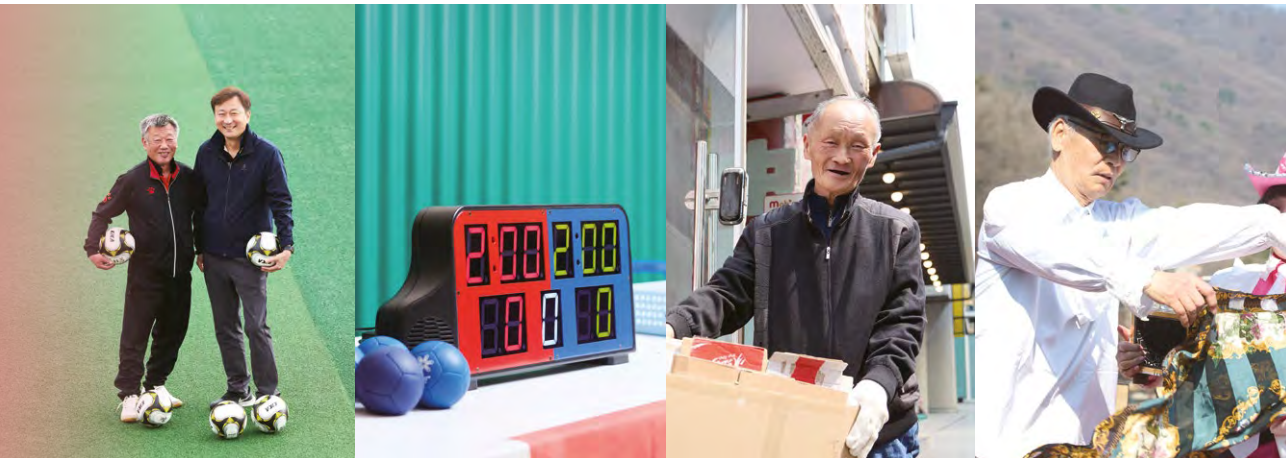
—— 일상 속 살맛나는 세상 ——

23

—— 살.친.소 ——

살
맛나는 세상 2026년 5+6월 vol.160

등록일자 1999년 4월 19일 등록 신고번호 서초마00080(격월간 비매품) 발행일 2026년 5월 6일 발행인 겸 편집인 박문희
발행처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코오롱타워 18층 '살맛나는 세상' 편집실 기획 오수민 구독신청 및 문의 오운문화재단 홈페이지
(good-news.or.kr) 편집 및 디자인 위닷(wedot.co.kr) 인쇄 보명씨앤아이(02-2274-4545) 사진 김태화



24

나의 삶, 나의 보람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축구 지도 봉사해 온
제천FC어린이축구단 지도자들

28

배움과 나눔 사이

10년째 보치아 심판 봉사
이여온 김말레 씨

32

봉사로 피워낸 희망

폐지 모아 나눔 실천하는
'아산의 봉사왕' 김천수 씨

36

다시 빛나는 인생

무료 마술 공연으로 웃음을
전하는 허완 씨

40

다정한 행동 도감

세상을 밝힌 어린이,
어린이를 지킨 어른들

42

#2030

#SNS인증이벤트

44

삶을 비추는 문화

연극으로 새롭게 이야기를
창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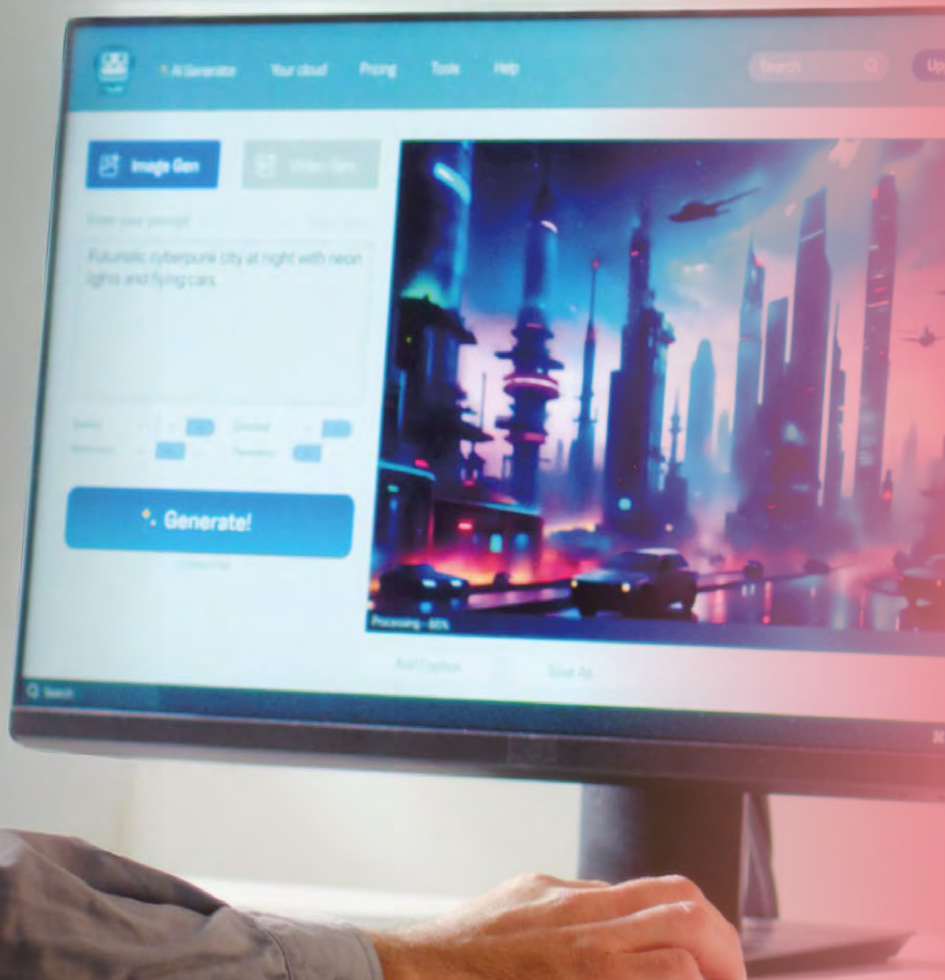
46

코오롱 사회공헌 Insight

50

빨간 우체통

사진: 책상 앞에 앉은 사람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래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모니터 화면에는 푸른빛의 도시 풍경이 표시되어 있다.



기술의 시대 속
사람의
온도를 지키다

새로운 세상을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조합해 가장 확률 높은 결과를 생산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결핍을 바탕으로 세상에 없던 가치를 창조합니다.
사람의 창조는 정답이 없는 미지의 영역을 상상으로 채워가는 모험입니다.

기술의 시대, 사람의 온도를 지키는 세 번째 가치는 창조입니다.
효율과 속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마음을 담았느냐'는 물음입니다.

타인의 불편을 살피는 다정한 아이디어,
정해진 길을 벗어나 나만의 궤적을 그리려는 용기,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해 내는 회복력까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힘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진: 붓으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손

만드는 힘

창조

시스템이 빛은 ‘정답’의 감옥을 넘어, 미지의 바다로 나아가는 ‘창조’의 항해

삽화: 붓 끝에서 우주와 행성,
빛나는 입자들이 흘러나오며
창조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저장할 것인가’라는 기술적 물음보다 ‘무엇을 서로의 마음에 남길 것인가’라는 인문적 물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AI는 기억을 최적화하며 우리를 돕지만, 인간은 새로운 가치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합니다. 결국 세상을 진보시키는 것은 기술의 정교함이 아니라, 인간다운 가치를 지키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려는 마음입니다.

정호훈 디지털융복합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마케팅 전략 및 디지털전환(DX) 컨설팅사 ‘퍼스펙티브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림대학교 경영학 겸임교수, 채용 전문 면접관 등의 경력에서 얻은 폭넓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AI, 경영, 문화, 심리학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의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트루먼의 탈출:

정교한 ‘생산’을 거부하는 인간의 진정성

영화 <트루먼 쇼(The Truman Show, 1998)>의 주인공 트루먼은 거대한 돐 안에 건설된 ‘씨헤이븐’이라는 완벽한 가상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가 마시는 커피, 만나는 이웃의 미소,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조차 치밀한 계산과 통제에 의해 ‘생산’된 결과물입니다. 연출자 크리스토프에 의해 설계된 이 공간은 트루먼에게 거의 완전한 안전과 안락을 제공하죠.

오늘날 AI 시대는 이 씨헤이븐의 세트장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는 씨헤이븐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진정성입니다. 트루먼은 시스템이 마련한 평온한 정답을 거부하고 폭풍우를 뚫어 끝내 미지의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자기 삶의 창조자가 됩니다. 시스템의 정답을 의심하고, 그 너머의 가치를 상상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용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확률이 낮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위해 모험합니다. 결과 중심의 ‘생산’이 효율의 극대화를 지향한다면, 가치 중심의 ‘창조’는 존재의 의미를 묻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 어린이가 코드가 가득한 대형 화면 앞에 서서 화면 내용을 바라보고 있다.

인간의 창조는 안락한 시스템에 머무르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AI가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기댓값을 출력하는 동안, 인간은 그 확률이 낮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위해 모험합니다. 결과 중심의 ‘생산’이 효율의 극대화를 지향한다면, 가치 중심의 ‘창조’는 존재의 의미를 묻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산된 정답’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항해일 것입니다.

알고리즘의 한계:

‘잠재 공간’에 갇힌 생산의 논리

AI 기술, 특히 생성형 AI의 핵심은 ‘잠재 공간(Latent Space)’이라 불리는 수학적 영역에서의 확률적 탐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의 특징을 고차원적인 좌표로 압축해 놓은 지도 안에서 AI는 점과 점 사이의 상관관계를 계산하고, 그 수리적 분포 안에서 ‘정답에 가까운’ 결과물을 도출해 내죠.

하지만 인지과학의 눈으로 보면 이는 데이터의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폐쇄적인 루프에 가깝습니다. AI는 자신이 학습한 지형도 밖으로 나갈 수 없으



사진: 조각가가 망치와 정으로 흰 돌을 깎아 조각 작품을 만들고 있다.

아무리 정교해도 과거의 궤적에 의존한 ‘재구성’일 뿐, 데이터가 닿지 않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창조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며, 기계에게 창조란 수억 개의 파라미터가 직조한 확률 안에서 가장 오류가 적은 조합을 골라내는 연산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생성 모델은 학습된 패턴의 조합을 통해 때로 예기치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산출을 인간의 책임과 의미 부여를 동반한 창조와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인간의 창조는 논리적 개연성을 뛰어넘는 ‘비약’에서 발생합니다. 인간은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에서도 직관에 의존하며, 때로는 비논리적이고 편향된 선택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야말로 새로운 가치를 잉태하는 토양이 됩니다.

결국 AI는 무엇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할 것인가에 집중하지만, 인간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

며 결과물에 실존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AI의 화려한 결과물을 보면서도 그것을 온전한 ‘창조’라 부르기 어려운 이유는, 그 안에 창작자의 고뇌와 책임, 정답 너머를 보려는 주체적 의지가 결여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체적 한계의 역설: ‘체화된 인지’가 빚어내는 창조의 숨결

인간의 창조성은 신체와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신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와 결합되어, 단순한 데이터 재조합을 넘어서는 질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인지과학에서는 인간의 사고와 창조가 뇌라는 고립된 연산 장치에서만 일어나

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환경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창조하는 가치는 머릿속의 논리만이 아니라, 근육의 떨림, 고통의 감각, 타인과의 접촉이라는 실체적 경험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최근 등장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나 고도의 로봇틱스 기술이 인간의 신체를 모방하려 하지만, 인간의 체화된 인지를 온전히 따라오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신체적 경험은 감정과 실존적 의미와 결합되어 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AI와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는 가치의 무게를 알 수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 사랑과 같은 고귀한 가치는 상처받기 쉬운 신체를 가진 인간이 그 한계를 극복하려 할 때 비로소 창조됩니다. 화가가 캔버스에 붓을 대는 순간의 호흡, 조각가가 돌을 깎아낼 때 느끼는 저항감은 데이터로 치환될 수 없는 창조의 본질입니다.

사진: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창조력은 부품처럼 교체할 수 없는 신체의 '유한성'에서 싹틔웁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몸이 하나뿐이기에, 우리는 자신의 생명력을 어디에 쏟을지 고뇌하며 그 선택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신체를 통해 세상을 느끼고 그 감각을 가치로 승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인간만이 가진 창조의 특권입니다.

가치의 공동체:

AI 시대에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창조는 단순히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과 사회적 유대를 이어주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건네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창조적인 추억을 나눌 때, 그것은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남은 온기를 확인하는 행위가 되며, 이러한 믿음이 쌓여 단단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지켜야 할 보루는 효율을 넘어서 '비효율의 숭고함'입니다. 기계가 매끄러운 정답을 낼 때, 우리는 타인의 슬픔 곁에서 느린 이해와 온기를 나누는 '무모한 항해'를 지속해야 합니다. 역사는 데이터의 총합이 아니라, 트루먼처럼 주체적 의지로 새긴 가치 있는 순간들이 모여 흐르는 강물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결과'를 생산하는 동안, 인간은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비로소 역사를 써 내려갑니다. 그것이 AI 시대에 인간이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며, 기계의 차가운 연산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

오래된 약속, 함께 걸어온 시간

제12회 우정선행상 본상 수상단체 인우회



인우회 인터뷰
영상 보러가기



사진: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는 인우회 회원들

인우회가 예림원 식구들의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나선 지 올해로 37년.

1989년 첫 나들이 이후, 이들은 예림원 식구들과 함께 바깥으로 나서는 시간을 오래도록 이어왔다.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외출이, 오래 기다려온 하루가 되기까지. 인우회는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이 걸을 지켜왔다.

첫 외출이 시작된 날

인우회의 시작은 1989년 3월이었다.
인우야학에서 봉사하던 대학생들은 같은 인천 지역의 지적장애인가주시설 예림원 생활인 네 명과 함께 처음 바깥나들이에 나섰다. 버스를 타고 수봉공원으로 가 몇 시간을 함께 걷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 소박한 외출은 사십 년 가까이 이어질 동행의 시작이 되었다. 처음 내딛은 그 짧은 걸음은 훗날 인우회가 오래도록 붙들게 될 나들이 봉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사진: 인우회 회원들이 예림원 생활인들의 손을 잡고 외출에 나섰다.



손을 놓지 않던 시간

초창기의 나들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고 긴장된 일이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생활인들이 많아 한순간도 시선을 떼어서는 안 됐고, 실제로 외출 중 한 사람을 잃어버려 식은땀을 흘리며 찾아다니는 일도 있었다. 그 뒤로 회원들은 생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나이, 복용하는 약은 물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음식, 특이 행동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게 됐다. 인우회는 밖으로 나가는 하루를 무사히, 그리고 즐겁게 마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래전부터 몸으로 배워왔다.



사진: 생활인들과 함께 베이킹을 하고 있다.



밖으로 나가는 기쁨

인우회가 오래도록 해온 일은 단순한 외출 봉사가 아니었다. 예림원 생활인들에게 계절 따라 달라지는 바깥 풍경과 공기, 함께 웃고 밥을 나누는 하루를 건네는 일이었다. 생태공원을 걷고, 도시락을 나눠 먹고, 파크골프와 빙상장 체험을 하고, 영화관과 과학관, 전시장을 찾는 동안 외출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즐거운 경험으로 바뀌어갔다. 1997년부터는 회원 가족과 예림원 생활인이 함께하는 1박 2일 여행도 이어졌다. 처음에는 외출을 낯설어하던 이들도 이제는 나들이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사진: 인우회 회원들과 예림원 생활인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사진: 제12회 우정선행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의 단체 사진

우정선행상이 남긴 이름

2012년 제12회 우정선행상 본상 수상은 인우회가 이어온 나들이 봉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비춰준 순간이었다. 함께해온 시간이 예림원 생활인들의 하루를 넓히고 삶의 즐거움을 키워온 일이라는 사실을 바깥에서도 알아본 셈이었다. 회원들에게 상은 성취의 확인이라기보다, 지금처럼 흔들리지 말고 계속 가라는 격려에 가까웠다. 그래서 인우회는 수상 전과 다르지 않게 예림원 식구들의 다음 외출을 준비해 왔다.



1989년 3월

인우회 결성, 예림원 생활인
네 명과 첫 외출 진행

1997년

회원 가족과 예림원 생활인들이
함께하는 1박 2일 여행 시작



사진: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고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있는 생활인들과 인우회 회원들

함께 자라난 사람들

청춘의 열정으로 시작한 회원들은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각자의 삶을 꾸려왔다. 봉사 현장에서 인연을 맺어 부부가 된 회원들도 있었고, 부모 손을 잡고 따라나섰던 자녀들은 장애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 자랐다. 예림원 생활인들 역시 그 시간 속에서 함께 나이를 먹었다. 한 달에 한 번 함께한 날들이 쌓이고, 소식지와 회지에 서로의 시간이 기록되면서 인우회는 봉사단체를 넘어 삶을 함께 건너온 공동체가 되었다.

여전히 함께 걷는 시간

세월이 흐르며 나들이를 준비하는 일은 예전보다 조금은 편해졌다. 예전에는 회원들이 생활인들과 함께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하루 일정을 꾸려야 했다. 지금은 문화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면서, 생활인들에게 맞는 활동을 찾기 수월해졌다. 하지만 예림원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은 여전히 직접 마련한다. 지금도 인우회에게 생활인들과 함께할 다음 하루를 기다리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



사진: 진달래 공원에서의 나들이



2012년

제12회 우정선행상 본상 수상



2026년 5월 현재

월 1회 예림원 봉사 지속

2008년 1월

인천지역 공부방에 장학금 지급 시작

사진: 하늘그림 부원들이 호남대학교 잔디밭에서 수어로 '그림'을 표현하는 손동작을 하고 있다.



손끝으로 배우고, 마음으로 전하는 말

호남대학교 수어동아리 '하늘그림'





사진: 하늘그림 부원들이 행복나루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로 배우는 수어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하늘그림 부원들이 청각장애인 학생들과 함께한 캠프에서 조별 활동을 하고 있다.

소리가 닿지 않는 자리에서도
마음은 전해진다. 손의
움직임으로 단어를 만들고,
표정으로 문장의 의미를 완성하는
수어가 그렇다. 호남대학교
수어동아리 ‘하늘그림’은 수어를
배우고, 봉사 현장에서 직접
수어를 써보며 소통의 경험을
쌓는다. 청각장애인과 청인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는
동안, 마음도 한 뼘씩 자라난다.

가르치고 배우며 이어온 하늘그림의 시간

하늘그림은 호남대학교 재학 시절 수어를 배운 이용규(54) 씨가 졸업 후 학교에 부임해 후배들에게도 수어를 가르쳐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동아리다. 하늘에 그림을 그리며 꿈을 꾸듯, 청각장애인과 청인이 수어로 함께 자유롭게 소통하길 바라는 뜻도 이 이름에 담겨 있다. 그는 1999년 작은 수어 모임을 꾸렸고, 그해 교내 1기 수어 교육을 열었으며 같은 해 하늘그림도 발족했다. 현재 호남대학교 학생처 학생지원팀 차장으로 근무 중인 이용규 씨는 지금도 동아리의 초급과 중급 수어 교육을 맡고 있다. 고급 과정은 수어 통역사로 활동하는 졸업생 선배와 외부 강사가 함께 이끈다. 한 사람의 의지에서 출발한 하늘그림은 이제 선배와 후배, 청각장애인과 청인이 함께 이어가는 배움의 자리가 됐다.

처음부터 배움과 봉사의 시간이 나란히 흘렀다. 1999년 교내 1기 수어 교육에는 80여 명이 참여했고, 같은 해 봉사단도 발족했다. 그렇게 시작된 동아리는 어느덧 30기까지 이어졌다. 지금도 초급반은 매주 화요일, 중급반은 매주 월요일, 고급반은 매주 목요일마다 수업이 열린다. 학생들은 손동작만이 아니라 표정과 시선, 몸의 방향까지 함께 익히며 수어를 배운다. 간호, 물리치료, 작업치료, 항공서비스 등 전공은 제각각이며, 영화와 드라



사진: 하늘그림 중급반 수업에서 이용규 씨가 학생들과 함께 수어 표현을 익히고 있다.

마를 보고 수어에 관심이 생겼거나 일상에서 청각장애인을 만나며 필요를 느껴 동아리 문을 두드린 학생들도 많다. 그렇게 모인 학생들은 함께 수어를 배우고, 그 배움을 다시 현장으로 옮긴다.

배운 수어가 누군가의 하루에 닿을 때

하늘그림 학생들은 행복나루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수어 교육과 수어 트로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문자와 지숫자를 익히고, 수어로 노래를 배우는 이 시간은 어르신들에게는 치매 예방 활동이 되고, 학생들에게는 배운 수어를 실제로 써보는 시간이 된다. 광주광역시 북구 농아인쉼터에서는 학생들의 전공을 살린 봉사가 이어진다. 수어로 소통하며 혈압과 혈당을 재고, 마사지와 응급 처치, 예절교육 등 배운 내용을 나눈다. 여기에 광주농아 청년회와 함께하는 농아인 체험, 수어 페스티벌, 농아인과 함께하는 수어 캠프까지 더해지며 배운 수어는 공연과 교류의 자리로도 넓어진다. 행복나루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은 주 1회 금요일, 북구 농아인쉼터 활동은 주 1회 목요일



사진: (위) 광주광역시 북구 농아인쉼터에서 하늘그림 부원들이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래) 북구 농아인쉼터에서 하늘그림 부원들이 청각장애인들과 수어로 소통하며 혈압 측정 봉사를 하고 있다.



사진: 하늘그림 부원들이 수업 시간에 서로 수어로 대화하며 표현을 익히고 있다.

오후 또는 한 달에 3~4회 진행된다. 지금의 하늘그림은 수어를 배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전공과 봉사, 공연과 교류를 함께 엮어가는 동아리에 더 가깝다.

하늘그림의 활동은 오래전부터 학교 안팎으로 넓게 알려져 왔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수어 통역 요원을 파견했고, 광주 사랑의수어경연대회에서도 여러 차례 수상했다. 전국 단위 공모 사업에도 꾸준히 선정됐고, 2023년 학생주도 비교과 프로그램 경진대회 ‘프리드로우’에서 은상과 동아리경진대회 대상을 받았다. 해마다 열리는 홈커밍데이에는 졸업생과 재학생이 다시 모여 공연과 수어게임, 식사를 함께 한다. 오래전 배운 수어가 사람을 다시 불러 모으고, 또 다음 세대에게 건넨다. 하늘그림은 그 흐름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Q. 하늘그림에 들어온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때부터 수어에 관심이 있었어요. 혼자 영상을 찾아보며 공부해 보기도 했는데, 쉽지 않았고 제가 맞게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늘그림에 들어온 뒤에는 선배님들께 배우니까 훨씬 재미있고, 빠르게 손에 익는 것 같아요.

Q. 봉사 현장에서 수어를 써보니 어땠나요?

교실에서는 정확한 동작을 익히는 데 집중하게 되는데, 봉사 현장에서는 결국 소통이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생각한 만큼 바로 손짓이 나오지 않을 때도 많고, 그럴수록 손동작만큼 표정이 중요하다는 걸 더 크게 느껴요. 마음을 담은 표정이 더해져야 비로소 말이 통한다는 걸 현장에서 배우고 있어요.

Q. 수어를 바라보는 생각도 달라졌나요?

실제 수어 통역사가 된 선배들도 있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다양한 자리에서 수어를 활용하는 선배들 이야기도 들었어요. 수어가 동아리 안에서만 쓰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더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수어를 더 잘 쓰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

하늘그림 30기 박지은 회장과 미니인터뷰

사진: 하늘그림 30기 박지은 회장은 수어로 '사랑해'를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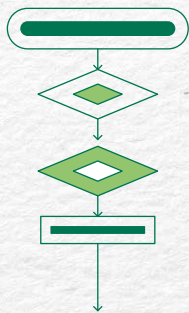
사진: 코드코치 부원이 블록코딩 화면이 열린 컴퓨터 앞에서 마이크로비트 보드를 손에 들고 코딩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Code Coach

대학생이 교사가 되어 어린 학생을 가르친다. 디지털 교육의 하나인 ‘코딩(Coding)’을 좀 더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말이다. 배우는 이와 가르치는 이, 모두가 성장하는 코딩 교육 봉사, 그 기쁨의 순간을 담았다.



사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딩 및 피지컬 컴퓨팅 수업



반짝이는 호기심에 날개를 달다

대학생 연합 코딩교육봉사 동아리
‘코드코치(Code Coach)’

배움의 기회는 공평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 환경도 크게 달라졌다. 전면적인 원격수업 시기를 거친 지금, AI의 도입과 활용이 화두가 되는 한편 학생들 간 디지털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됐다. 서울·경기권에 비해 지방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지방의 중심 지역과 상대적으로 외진 지역의 교육 격차는 생각보다 커서 부모와 교사,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풀어나가기 어려운 문제다. 코드코치는 이러한 교육 격차에 대해 일찍이 관심을 갖고 2017년부터 코딩 교육 봉사를 해오고 있다. 현재 활동하는 회원은 운영진과 교사를 합해 총 32명이다.

“지역사회에서도 교육 격차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산 중심가와 멀리 떨어진 지역 초등학교의 코딩 교육은 방과 후 활동으로 메울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기도 해요. 저를 비롯해 코드코치 멤버들은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모여 배움의 기회에서 오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코딩 교육 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동아리 회장을 맡은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25학번 장수빈 씨는 코드코치는 부산대학교 학생만 가입할 수 있는 동아리가 아니라, 학과나 전공 상관없이 부산 지역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코딩과 교육, 봉사에 관한 면접을 거쳐야 한다. 물론 중요한 건 ‘말발’이 아니다. 학생들을 대하는 진심 어린 눈빛과 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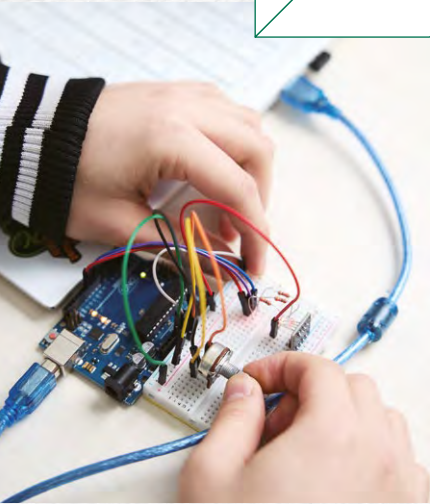


사진: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를 연결해 피지컬 컴퓨팅 실습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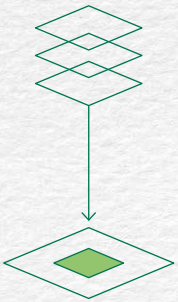


사진: 코드코치 선배 교사가 신입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교사와 학생이 함께 블록코딩 실습을 하며 프로그램을 완성해 가고 있다.

“어린 학생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코딩을 창작의 도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모터가 돌아가고, LED 전등이 켜지거나 자동으로 열리는 휴지통을 만드는 등의 코딩 실습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코딩

학과나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지만, 막상 어린 학생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사전 지식이 부족해 막막해하는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 학기 20여 명의 교사들을 직접 교육한다.

이번 봄학기에 새로 뽑힌 신입 교사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교육 강자가 마련됐다. 박주성 교육팀장은 교사들에게 시각적인 수업 자료를 만드는 노하우와 수업 시간에 유의할 점을 유머러스하게 전달한다.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있는 신입 교사들의 눈빛이 각양각색이다. 평일에는 교수의 강의를 듣는 학생이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마음으로 진지하게 자리에 앉아 있다. 이론 설명이 끝나면 모의 실습수업을 진행한다. 정규교육은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인 아두이노(Arduino)와 마이크로비트(Micro:Bit) 반으로 나뉜다. 두 수업 모두 코딩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보는 피지컬 컴퓨팅 기반의 메이커 교육이다. '코딩'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코드가 난무한다고 떠올리기 쉽지만, 코드코치가 가르치는 건 '블록코딩'이다. 코딩의 문법을 글로 써서 입력하는 방식이 아닌 레고 블록처럼 주어진 명령 블록을 정확하게 쌓으면 코딩이 완성된다.

“어린 학생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코딩을 창작의 도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모터를 돌아가고, LED 전등이 켜지거나 자동으로 열리는 휴지통을 만드는 등의 코딩 실습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사진은 5주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게 수업을 준비하는 한편, 교사 세미나를 열어 커리큘럼을 보완할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 봉사

코딩 교육 봉사는 정규교육과 파견교육으로 나뉜다. 정규교육은 코딩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부산대학교를 방문해 이루어지고, 파견교육은 방학 때 코딩 교육을 신청한 학교로 교사들이 직접 찾아가는 봉사다. 이를 통해 학기당 40~50명의 학생이 교육을 수료한다. 매회 세 시간씩 진행되는 수업에서 주교사는 준비한 수업 자료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보조교사는 두 학생 사이에 앉아 케어하는 역할을 한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학생들의 과제물을 검토해 일대일로 피드백을 전달하고 있다.

코드코치는 보다 다양한 코딩 콘텐츠로 부산 지역의 더 많은 학생을 만날 기대에 차 있다. 코드코치 교사들은 AI 활용과 최근 코딩 트렌드를 접목해 코딩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싶다고 말한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코딩 수업은 새로운 기술 교육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청소년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미래 기술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그 시간은 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우리'라는 결속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

사진: 코드코치가 교육부 주관 프로그램의 멘토로 참여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지도를 진행했다.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만난 《살맛나는 세상》 책자 또는
《살맛나는 세상》 책자가 있으면 하는 장소를 직접 촬영하여
짧은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세요.

* 직접 촬영하신 사진만 보내주세요. 타인의 사진 사용 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4월호 참여작

박주현



사진: 《살맛나는 세상》을 손에 들고 있다.

사무실에서 무심코 열어본 책자에
가슴 따뜻하게 훈훈한 이야기들
한가득이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 집에
챙겨왔습니다. 정 많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눌 생각에
뿌듯해집니다.

+

방정녀



사진: 테이블 위에 놓인 《살맛나는 세상》과 커피 한 잔

주말 아침, 향긋한 커피 향과 함께
펼쳐 든 책자 속에 우리 이웃들의
따스한 삶이 담겨 있네요. 거창한
선행은 아니더라도 저 또한
누군가에게 기분 좋은 향기를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하며 한
페이지를 넘깁니다.

+



참여 방법 '살맛나는 세상' 카카오톡 채널 접속(좌측 QR코드 스캔) 후 '채팅하기(●)'
(채팅 가능 시간: 평일 9:00~18:00)

참여 기한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 선정되신 분들의 사진 및 메시지는 책자에 소개되며, 커피 기프트콘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살맛나는 세상’을 친구에게 소개합니다!

숨겨진 선행·미담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알려 세상을 보다 살맛 나게 만들기 위해 탄생한 책자, 《살맛나는 세상》! 더 많은 분들에게 그 따뜻한 의미를 전하고자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살맛나는 세상》을 주변에 소개해 주시거나, 소개를 받으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살맛나는 세상》
구독 신청하기

New message

From 독자 고광일

To 친구

이 책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평소 봉사와 나눔에 관심이 많은 친구에게 이 책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책 속 인물들의 삶을 보며 함께 감동하고, 언젠가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보자고 서로를 격려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New message

From 독자 나동훈

To 직장 동료

좋은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알고자 소개해 주었습니다.

소방관이란 직업적 특성으로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직업이자 의무감으로 하고 있지만 이 책에 소개되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남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계신 분이어서 정말 대단합니다. 좋은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알고자 직장 동료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참여 방법



《살맛나는 세상》을 소개하셨거나 소개받으신 후 좌측 QR코드를 스캔하여 참여

참여 기한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 선정되신 분들의 사연은 책자에 소개되며, 두 분이 함께 드실 수 있는 커피 기프트콘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진심은 언어가 아닌 행동에 담긴다. 그들은 자신들의 봉사를 말로 포장할 줄 모른다. 대신 몸으로 보여준다. 매월 두 차례 이상 20~30명의 어린이와 운동장을 함께 누비면서, 나누는 즐거움을 온몸으로 누리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들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성 함양을 위해 제천FC어린이축구단을 꾸려온 지 올해로 20년째. 한결같은 나눔에 진심의 햇살이 반짝거린다.

함께 피어 아름다운 꽃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축구 지도 봉사해 온
제천FC어린이축구단 지도자들

축구부 선후배에서 (나눔의 동지)로

함께 피어야 눈부시다. 개나리도 진달래도 벚꽃도 저 홀로 찬란함을 뽐내지 않는다. 조화로움이 최고의 아름다움을 일깨우는 건 사람도 마찬가지다. 서로 믿고 도우면서 더불어 성장하는 기쁨. 제천FC어린이축구단 소속 아동들은 축구라는 팀플레이를 통해 그 행복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배워간다. 박정희(59) 감독과 허진호(57) 코치의 주된 가르침이 바로 '신뢰와 협력'이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한 명 더 있어요. 엄기성(58) 수석코치가 처음부터 함께 해왔는데, 재작년 뇌출혈로 투병을 시작하면서 외부 활동을 쉬는 중입니다. 빈자리가 아주 커요.”

세 사람은 제천제일고 축구부 선후배 사이다. 과거 축구 선수였던 그들은 90년대 초반 제천시청 직원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들어와 직장의 동료이자 나눔의 동지가 됐다. 현재 박정희 감독은 제천시청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허진호 코치는 제천시청 건설과에서 주무관으로 일하고 있다. 지역을 위해 근무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셈이다.

사진: 박정희 감독이 아이들과
밀착 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허진호 코치와 박정희 감독이 축구공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봉사 시간

19년



봉사 대상

제천의 취약계층 아동으로 구성된

제천FC어린이
축구단



배출 학생

500여 명



커커이 추억을 쌓아온 (19년)



사진: (위) 제천 대제중학교에서 격주 토요일마다 정기 훈련을 한다.

(아래) 방학 때마다 동해시 망상해변으로 2박 3일간의 전지훈련을 갖는다.

제천FC어린이축구단의 역사는 2007년 가을에 시작됐다. 당시 박정희 감독의 집 앞에 월드비전 제천지회 사무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곳에서 저소득 아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어린이축구단을 설립하고 싶다고 연락해 왔다.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박 감독은 기꺼이 수락했다. 취지도 좋았고, 함께할 동료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월드비전 제천지회가 지원하던 저소득 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을 일일이 방문해 아동들의 형편을 살폈다. 일련의 준비를 거쳐 2008년 6월 정식으로 창단했다.

“지금은 격주로 하고 있지만, 초창기엔 매주 토요일마다 훈련했어요. 운동장 빌리는 게 쉽지 않아서 8년 전 이곳 대제중학교에 안착하기까지 여러 학교를 전전했죠.”

제천FC어린이축구단은 방학 때마다 동해시 망상해변으로 2박 3일간의 전지훈련을 떠난다. 창단 첫째 전지훈련으로 어디를 가고 싶냐 물었을 때 아이들이 “바다를 보고 싶다”고 했던 것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까닭이다. 오토캠핑장이 있는 그곳에서 아이들과 밥을 지어 먹으며 훈련한다, 여름엔 해수욕을 함께 하고, 겨울엔 해돋이를 같이 본다.

“동해FC어린이축구단과 친선경기도 해요. 지도자들과 아이들이 축구 경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월드비전 제천지회가 충북사업본부로 통폐합되면서, 2016년부터는 신백아동복지관이 제천FC어린이축구단의 관리를 맡고 있다. 담당 기관은 변경됐지만 재능기부는 지속됐다. 복지관 승합차로는 30명 가까운 아이들을 모두 태울 수 없어, 그들은 각자의 차량으로 제천 곳곳에 사는 아이들을 운동장까지 손수 데려온다. 훈련이 끝나면 집까지 데려다준다. 이동하는 데만 두 시간쯤 소요되지만, 그 시간에 쌓는 ‘정’이 그들은 참 좋다.

**“각자의 학교에서 축구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대표선수로 뛰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자존감이 크게 향상되죠. 과거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많이 냈어요.
경기에서 이겨본 아이들은 눈빛도 자세도 달라져요. 성취감이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사진: 축구 지도를 하고 있는 박정희 감독(왼쪽)과 허진호 코치(오른쪽)

(축구) 자존감을 키우다

“2017년부터 시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첫해에 300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700만 원으로 상향됐고요. 그 외 몇 분의 후원금과 시청 동료들의 찬조금, 우리의 사비로 운영합니다. 항상 빠듯하지만 늘 꿈을 꾸요. 창단 20주년이 되는 내년에 제주도에서 전지훈련을 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지금까지 제천FC어린이축구단을 거쳐 간 아동들은 모두 500여 명에 이른다. 게임중독으로 고생하던 몇몇 아이들은 축구를 통해 그 굴레에서 벗어났고, 아토피가 심하던 몇몇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며 그 질환에서 해방됐다. 햇살 아래서 함께 뛰는 일이 몸과 마음을 건강으로 이끌었다. 입대한다고 찾아오는 친구도, 결혼한다고 연락하는 친구도 어느덧 있다. 잘 자라준 모습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각자의 학교에서 축구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대표선수로 뛰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자존감이 크게 향상되죠. 2011년 월드비전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우승, 2015년 청주시장배 유소년축구대회 우승 등 과거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많이 냈어요. 경기에서 이겨본 아이들은 눈빛도 자세도 달라져요. 성취감이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지만 아이들이 눈에 밝혀 그러지 못했다고 두 사람은 고백한다. 그 마음을 두 글자로 줄이면 ‘사랑’이다. 봉사보다 그 단어가 한 수 위다. ☺



사진: 아이들과 함께 정기 훈련 중인 엄기성 코치(왼쪽)와 박정희 감독

공정함 위에 온기를 더하는 사람

사진: 김말레 씨가 보치아 경기장 안에서
청홍 표시기를 들고 서 있다. 뒤편에는
경기 점수판과 보치아 공이 놓여 있다.



공이 표적구를 향해 천천히 굴러가는 동안, 심판석의 눈은 한순간도 쉬지 않는다. 시간을 재고 규정을 살피는 일이 보치아 심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0년째 보치아 심판 봉사를 해온 김말례(56) 씨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선수들이 끝까지 자기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한 번 더 귀 기울이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말을 건네는 일. 그의 심판 봉사는 그렇게 공정함 위에 마음을 더하는 일로 이어져 왔다.

10년째 보치아 심판 봉사 이어온 김말례 씨

사진: 김말례 씨는 공정한 판정만큼 선수들의 마음을 살피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자격을 따고 경기장으로 들어서다

김말례 씨에게 봉사는 특별한 다짐이라기보다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온 삶의 한 부분이었다. 서른셋 무렵 처음 봉사 현장에 발을 들였고, 이후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교통봉사대 활동, 광양진 상노인요양원 식사 봉사 등을 이어왔다. 보치아 심판 봉사자가 된 것도 그런 삶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2016년 6월에 열린 제8회 전라남도 광양시 장애인 생활체육 보치아 동호인대회를 앞두고 심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심판 봉사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춰야 했기에, 그는 곧바로 교육장으로 향했다.

“자격증이 있어야만 제대로 도울 수 있다는 말에 앞뒤 재지 않고 교육장으로 달려갔죠. E급 심판 자격을 따고 바로 다음 날 심판 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휠체어를 탄 선수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경기를 지켜보다 보니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더 크게 보게 되더라고요. 몸이 힘든데도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내려는 걸 보면, 제가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사진: 김말레 씨가 보치아 경기에서 청홍 표시기로 차례를 알리고 있다.

규정을 익히고 마음을 살피는 심판

보치아는 표적구에 가까이 공을 던지거나 굴려 승부를 가르는 장애인 스포츠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 현장은 훨씬 복잡하다. 개인전과 페어전, 단체전에 따라 경기 방식이 다르고, 선수 등급에 따라 시간과 규정도 달라진다. 김말레 씨도 처음에는 기록심으로 점수와 시간을 관리하는 일부터 맡았다. 대회를 거듭할수록 심판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절감했다.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선수들의 경기 흐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국 단위 대회에 꾸준히 참여하며 승급 과정을 밟았고, 지금은 2급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9 서울 보치아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선수권대회에서는 9박 10일 동안 심판으로 참여했고, 2023년 평택에서 열린 2023 전국 보치아 슈퍼리그 최종전에서는 심판왕으로 선정됐으며, 2025 서울 월드보치아컵에서 선심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오래 붙들고 있는 것은 화려한 이력보다 태도다. 전문성이 쌓이면서 대회에 따라 교통비 정도

사진: 새마을교통봉사대 활동의 하나로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을 돕는다.



의 수당을 받는 경우도 생겼지만, 작은 대회나 지역 대회 가운데에는 예산 사정상 봉사의 형태로 심판을 맡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말레 씨는 그런 경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며 현장을 지키고 있다.

“심판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선수들한테 말을 부드럽게 해야 하고, 선수들이 하는 이야기도 다 귀담아들어야 해요.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자기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선수들이 제 경기를 온전히 해낼 수 있도록 곁을 지키는 사람. 김말레 씨가 생각하는 좋은 심판은 그런 모습에 가까웠다. 그래서 그의 심판 봉사는 규정을 익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확함 위에 배려를 더하는 일로 이어진다.

**“심판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선수들한테 말을 부드럽게
해야 하고, 선수들이 하는 이야기도 다
귀담아들어야 해요.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자기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경기장 밖에서도 이어지는 봉사

그가 보치아 심판 봉사를 오래 이어올 수 있었던 힘도 결국 사람에게서 왔다. 경기장에서 만나는 선수들의 밝은 표정과 먼저 건네는 인사,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얼굴들이 그를 다시 현장으로 불러냈다. 친언니가 소아마비를 앓았고 이후 뇌출혈로 쓰러져 휠체어를 타게 된 경험 역시 그의 마음에 오래 남아 있다. 장애를 지닌 가족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시간은 선수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한 배경이 됐다. 그렇다고 그의 봉사가 경기장 안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로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키고, 장수체조 강사로 어르신들을 만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의용소방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해 왔다. 그 여러 활동 가운데서도 보치아가 특별한 이유는 분명하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배우고,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다시 선수들을 위해 쓰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공정해야 하는 자리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그는 오늘도 심판석 곁에서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며 묵묵히 봉사의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



사진: 광양진상노인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는 김말레 씨

사진: 보치아 경기 현장에서 공 위치를 확인하며 판정을 진행하고 있다.



나눌 수만 있다면 언제나 봄날

폐지 모아 나눔 실천하는
‘아산의 봉사왕’ 김천수 씨

사진: 버려진 종이를 주워 나눔을
실천하는 김천수 씨

고
파
웁,

나눔이 되다

그럼에도 기어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고,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내어
이웃을 돕는 이들. 김천수(74) 씨는
후자(後者)다. 1990년부터
경로잔치와 물품 기부로 지역
어르신들을 두루 보살펴온 그는
아내와 단칸방에서 사는 지금도
폐지와 고철을 주워 번 돈으로
나눔을 이어간다. 궁핍한 삶에서도
풍요의 꽃이 핀다.

사진: 김천수 씨가 97세 어르신 가정을 찾아
생필품을 전하고 있다



사진: 2024년 12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티끌을 태산으로, 봉사를 일상으로

그의 하루는 온통 티끌을 태산으로 만드는 데 쓰인다. 낡은 1톤 화물차를 몰고 폐지와 고철을 수거해온 지 올해로 12년. 그가 받는 돈은 폐지 1kg당 100원 안팎에 불과하지만, 그는 지레 실망하지 않고 아산시 곳곳을 온종일 누빈다. 버려진 종이를 줍는 그의 일은 거리 청소와 자원 순환, 생계유지와 나눔 실천을 모두 가능하게 한다. 갇마른 체구에 불편한 다리로도 그가 신나게 몸을 움직이는 이유다.

“예전엔 두 평짜리 정육점을 했어요. 그러다 밥집으로 업종을 바꿨는데, 함께 일하던 아내가 몸이 아프면서 가게를 접게 됐죠. 생계가 막막해졌을 때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종이상자를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업체가 있어 큰 힘이 돼요.”

편차가 있긴 해도 그가 폐지를 주워 번 돈은 한 달 평균 200만 원 안팎이다. 그걸로 단칸방 월세와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하지만, 그는 단 한 해도 나눔을 거른 적이 없다. 아무와도 나누지 않는 삶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재작년부터 인연을 맺게 된 아산시 온양1동온천9통경로당에 국거리용 우족과 딸기를 전달하는 날이다. 폐지를 줍기 위해 아산시 곳곳을 순회하는 것이 그의 나눔에 썩 도움이 된다. 아무 때나 들러 볼썽 물품을 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어르신들이 환한 미소로 그를 반긴다. 그가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이다.



사진: 김천수 씨가 경로당에 국거리용 우족과 딸기를 전달하고 있다

“아들이 셋인데, 크고 작은 장애를 모두 갖고 있어요. 아내도 거동이 힘들고요. 그런데도 제가 하는 일을 다들 지지해 줘요. 과거엔 함께 봉사하기도 했어요. 딱한 눈으로 저를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고마움, 나눔이 되다

“제가 서른여덟 살이던 1990년에 온양정애원(아산시의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술을 너무 좋아하셨던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한 뒤 우리와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생사를 알 수 없던 아버지가 그곳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말년을 보내셨더라고요. 그 고마움을 갚고 싶어 장례 직후 그곳에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당시 정육점을 운영하던 그는 자주 가는 도축장에서 고기는 물론 선지와 등뼈 같은 부산물들을 가져와 온양정애원에 수시로 전달했다. 도고면의 다정마을요양원, 영인면의 메종드로제(구(舊) 성모복지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 등 아산시의 여러 복지기관과 경로당들에도 육류와 쌀, 난방유, 연탄, 에어컨, 선풍기 등을 무수히 기부했다. 아버지께 못한 효도를 그렇게 해나갔다.

사진: 어려운 살림에도 김천수 씨의 봉사를 묵묵히 응원해 온 아내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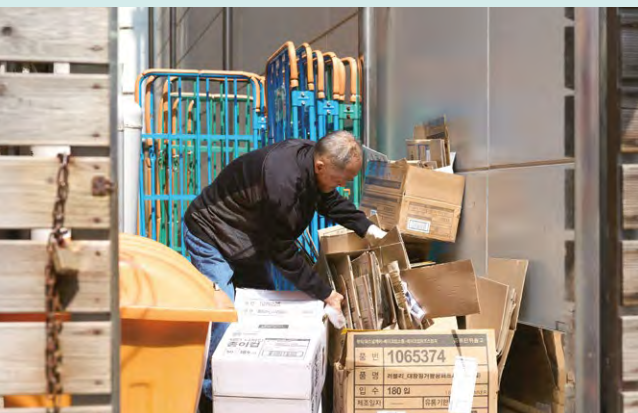


사진: 김천수 씨가 상가에서 나온 폐박스를 정리하고 있다

그 효도는 순회 경로잔치로 이어졌다. 아산시의 마을들을 돌며 자비로 음식을 대접하고, 지역 예술인들을 초청해 그 잔치에 흥을 더했다. 2005년 8월엔 송악면의 10개 마을 주민을 거산초등학교에 초대해 꽤 큰 경로잔치를 열기도 했다. 남을 즐겁게 하는 일이 나를 즐겁게 하는 일임을 나눔으로 배워갔다.

“2003년부터 아산시 시각장애인협회 소속 무지개 사물놀이팀과 경로잔치를 함께해왔어요. 팀원 한 분이 어느 날 ‘송악면에 어렵게 사는 분이 많다’는 얘길 하시더라고요. 당장 달려갔죠.” 10개 마을 합동 잔치를 열었던 배경이다.

인연을 타고 어디든 언제든

나눔은 그런 식으로 지속됐다. 오래 알아 온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 전 부회장 황성대(83) 씨가 ‘우리 마을에서도 해달라’고 하기에, 그는 선장면 가산리에서도 여러 번 효도 잔치를 열었다. 인연의 날개를 타고 서울시와 경기도, 세종시에서도 수차



사진: 2024년 겨울, 아산시 도고면의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연탄 300장을 기부했다.

례 경로잔치를 했다. 활동의 반경이 넓어질수록 나눔의 보람이 커졌다.

“먹을거리를 사 들고 혼자 사시는 어머님들을 틈틈이 찾아뵙요. 아흔 넘은 어머니가 계셔서인지, 그 연배의 할머니들이 꼭 제 어머니 같거든요. 훗날 후회하지 않게 더 자주 찾아뵙어야죠.”

2000년부터 20년 넘게 했던 장애인 차량 봉사도 빼놓을 수 없는 그의 나눔 이력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에 국거리용 육류와 백미 등을 기부하며 장애인들과 인연을 맺게 된 그는 하루 네 차례씩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출근하는 이들의 출퇴근을 기꺼이 맡았다. 누군가의 발이 돼주는 기쁨을 톡톡히 누렸다.

“아들이 셋인데, 크고 작은 장애를 모두 갖고 있어요. 아내도 거동이 힘들고요. 그런데도 제가 하는 일을 다들 지지해 줘요. 과거엔 함께 봉사하기도 했고요. 딱한 눈으로 저를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사람에겐 저마다의 인생 계절이 있다. 가슴속에 나눔이 있는 한, 그의 봄날은 영원히 가지 않는다. ☺

마술로 건네는 마법같은 위로

사진: 직접 만든 마술 도구들 앞에서 허완 씨가 활짝 웃고 있다.



◆ 무료 마술 공연으로 웃음을 전하는 허완 씨



사진: 남양주보훈요양원 어르신들을 위해
마술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때로는 웃음이 약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 웃는 순간에는 아픔도 근심도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 머물던 허완(74) 씨는 TV 속 마술 공연을 보며 자신도 저런 웃음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함께 입원해 있던 사람들과 잠시라도 즐겁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였다. 그렇게 그는 예순여덟의 나이에 마술을 시작했고, 그 마술은 이제 누군가에게 웃을 일을 만들어주며 그 자신에게도 다시 삶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병실에서 시작된 뜻밖의 무대

허완 씨의 마술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병실에서 시작됐다. 중국에서 30년 넘게 가구 디자이너로서 사업을 해오던 그는, 일이 기울고 건강까지 나빠지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당뇨 합병증과 우울증이 겹치자 병원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다. 그러던 중 TV에서 본 마술 공연이 그의 눈을 붙들었다. 마술이 신기하고 재밌었지만, 주변 환자들이 마술을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더욱 인상적이었다. 자신도 저런 웃음을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함께 입원해 있던 사람들과 잠시라도 즐겁게 지낼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는 마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병실 TV로 최현우 마술사의 공연을 보게 됐어요. 한참을 보다 보니 나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한편으로는 다들 저렇게 좋아하는데, 직접 보여주면 지루한 병원 생활에 서로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부터 봉사를 하겠다는 거창한 마음은 아니었지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봉사로 이어졌네요.”

2019년, 그렇게 그는 병실에서 첫 무대를 가졌다.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시기에 시작한 마술은 뜻밖의 위로이자 새로운 기쁨이 됐다.



사진: 우리실버요양원에서 마술 공연 봉사를 하고 있다.

버려진 것들에서 길어 올리는 웃음

병실에서 시작한 작은 마술은 곧 허완 씨만의 방식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마술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유심히 들여다보는 데서부터 출발했다. 화면 속 손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트릭의 원리를 짚어본 뒤,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다시 풀어내는 식이었다.

여기에 30년 넘게 가구 디자이너로 일하며 쌓아온 손의 감각이 더해졌다. 캔과 상자, 자투리 목재, 공사장 폐자재처럼 누군가에게는 쓰임을 다한 물건들이 그의 손에 들어오면 전혀 다른 도구로 바뀌었다. 바로 쓸 만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물건을 한쪽에 두고 오래 들여다보다가 어느 순간 머릿속에 마술 장면이 이어지면 그제야 손을 움직였다. 그렇게 하나둘 완성한 도구만 400여 개에 이른다. 사람 하나가 들어갔다가 사라지는 마술이나 여러 개의 칼이 꽃혀도 멀쩡히 빠져나오는 대형 마술 도구 역시 그렇게 손으로 빚어낸 결과물이다. 한 번 버려진 것들이 그의 손을 거쳐 다시 웃음을 만드는 도구가 되는 모습은, 힘겨웠던 시간을 지나온 그의 삶과도 어딘가 닮아 있다.

“무대에 서보니 관객들에게
기쁨을 줄 때가 가장
행복하더군요.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이, 알고
보니 저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웃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고 싶어요.”

사진: 오남호수공원에서 소년·소녀 가장 돕기 모금을 위한 공연을 펼치고 있는 허완 씨





사진: 허완 씨가 직접 만든 인형 퍼포먼스 도구를 착용하고 천사예술단과 함께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 크고 작은 지역 축제나 행사에도 공연 봉사를 나선다.

주는 기쁨이 일궈낸 진짜 마술

허완 씨의 무대는 우리실버요양원, 남양주보훈요양원 등 구리와 남양주 일대의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진다. 그의 발걸음은 지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웃음을 기다리는 이가 있다면 강원도, 전라도, 제주까지 거리와 상관없이 기꺼이 달려간다.

시작은 홀로 하는 마술 봉사였다. 그러다 2024년, 뜻을 함께하는 예술인 40여 명과 천사예술단을 꾸리면서 무대도 한층 넓어졌다. 마술에 노래와 장구, 모노드라마까지 더해지자 관객들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풍성해졌다. 그는 천사예술단과 함께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남양주 오남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정기 공연을 펼친다. 이 자리에서 마련한 기금은 남양주시청에 기부해 지역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무대에 서보니 관객들에게 기쁨을 줄 때가 가장 행복하더군요.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이, 알고 보니 저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웃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고 싶어요.”

여전히 당뇨로 병원을 오가고, 때로는 나이 탓에 몸이 벅찰 때도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활기차다. 자신의 공연을 지켜보는 누군가의 얼굴에서 잠시나마 근심이 사라지고 환한 웃음이 피어나는 것. 그 찰나의 기쁨이 허완 씨를 다시 무대로 이끄는 진짜 마술이다. ☺



사진: 폐자재를 활용해 직접 만든 마술 도구

세상을 밝힌 어린이, 어린이를 지킨 어른들



#1

폐지 쏟아진 어르신 수레 정리 도운 초등학교생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폐지를 실은
수레를 끌다 놓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본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네 명이
달려와 수레를 바로 세우고 흩어진
폐지를 함께 주워 담았습니다. 학생들은
폐지를 다시 묶은 뒤 수레를 밀어
어르신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삽화: 초등학교생들이 폐지를 실은 수레를 끄는 어르신을 도와
바닥에 떨어진 폐지를 함께 줍고 있다.

#2



삽화: 한 어린이가 소아암 환아를 위해 기부할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소아암 환아 위해 머리카락 세 번 기부한 열두 살 어린이

2025년 5월, 열두 살 어린이가 소아암
환아들을 위해 머리카락을 기부했습니다.
이 어린이는 여덟 살과 열 살에 이어 또 한번
머리카락을 기부했으며, 이를 위해 파마나
염색을 하지 않고 모발을 길러왔습니다.
기부된 머리카락은 가발이 필요한 또래
환아들을 위해 전달되었습니다. 어린이는
자신의 나눔이 아픈 친구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혐오’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다정과 관련한 연관어 검색량이 지난해에 비해 150% 이상 상승했고, ‘좋은 사람’의 행동을 삽화로 모아낸 책이나 팝업스토어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살맛나는 세상》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좋은 행동을 도감으로 보여드립니다.

#3

길 잃은 어린이 도운 편의점 직원

2025년 7월, 대전 서구의 한 편의점에 길 잃은 열 살 어린이가 하얗게 질린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를 본 편의점 직원은 아이를 진정시키고 먹을 것을 건네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직원은 아이가 기억하는 보호자의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도움으로 아이는 무사히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삽화: 편의점 직원이 길 잃은 어린이에게 먹을 것을 건네며 안심시키고 있다.

#4



삽화: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빠진 아이를 시민들이 힘을 모아 끌어올리고 있다.

승강장 틈에 빠진 4세 아이 구한 시민들

서울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에서 엄마, 동생과 함께 하차하던 4세 아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 틈에 빠졌습니다. 이를 본 주변 승객들은 지하철 문이 닫히지 않도록 몸으로 막고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결국 모두 힘을 모아 아이를 끌어 올려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사고 발생 약 20초 만의 일이었습니다. 🙏

2030 독자들이 바라본 '살맛나는 세상'
2030 독자들이 만드는 '살맛나는 세상'
SNS를 통해 참여해 주신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공유합니다.

사진: 검은색 옷 위에 흰색 참여 배지를 붙이고 있다.

byc**9



얼마 전 헌혈을 하러 다녀왔어요. 조금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끝나고 나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거창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살맛나는 세상'이에요.

#살맛나는세상 #코오롱 #오운문화재단
#일상기록 #헌혈 #소소한실천

erika_***edm



기차 창가에 앉아 책 한 권과 함께하는 이 순간,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을 읽으며 마음이 깊어집니다. 가족이나 연인을 사고로 잃은 이들에게 단 한 번 만날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 여행의 여유 속 작은 행복, 이 순간이 살맛나는 세상

#살맛나는세상 #코오롱 #오운문화재단
#책과함께 #희망과용기 #따뜻한마음

사진: 기차 창가를 배경으로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 책이 놓여있다.

aaa_gr**it



봄을 가장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맛있는 음식과 여유로운 풍경,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좋은 날. 이 순간이 바로 살맛나는 세상.

#살맛나는세상 #코오롱 #오운문화재단
#석촌호수 #벚꽃놀이 #봄일상 #소소한행복

사진: 벚꽃이 만개한 석촌호수와 그 너머의 도심 풍경이 보인다.



사진: 청바지를 입고 누워 있는 사람의 다리 너머로 하늘과 나무가 보인다

110***nken



따뜻한 햇살 아래 다리 쪽 뻗고 하늘멍..
잔잔한 하늘 바라보며 잠시 쉬어가는 이
순간이 제가 느끼는 살맛나는 세상!
작은 여유를 소중히 보내기..

#살맛나는세상 #코오롱 #오운문화재단
#하늘멍 #소소한행복 #일상힐링

사진: 테이블 위 텀블러에 레몬이 들어간 음료가 담겨 있다.

s**hia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카페에서 텀블러
사용합니다.

#살맛나는세상 #코오롱 #오운문화재단

사진: 한 사람이 산책로에서 잔개와 봉투를 들고 쓰레기를 줍고 있다.

tim**aewil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킨다 ㅎㅎ
살맛나는 세상을 위해!

#살맛나는세상 #코오롱 #오운문화재단

사진: 공연 티켓 두 장을 들고 찍은 사진

Oo****oong



엄마랑 함께하는 특별한 공연 데이트. 엄마랑
같이라서 더 의미 있는 하루! 좋은 작품 함께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 오늘의 추억도 오래오래
간직하기!!

#살맛나는세상 #코오롱 #오운문화재단
#엄마랑데이트 #문화생활



참여 주제

내가 바라본 [살맛나는 세상] 혹은 내가 만드는 [살맛나는 세상]
*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 살맛나는 세상을 위한 나의 작은 실천



참여 방법

01
주제에 맞는 사진을
찍거나 갤러리에서
찾아본다



02
내 SNS 계정에 내용과 함께
업로드한다
필수 해시태그: #살맛나는세상
#코오롱#오운문화재단



03
QR코드를 찍어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한다



50명을 추첨하여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하며, 선정작은 《살맛나는 세상》 7·8월호에 소개
이벤트 기간 2026년 5월 6일~6월 10일 당첨자 발표 개별 연락

연극으로 새롭게 이야기를 창조하다

THEATER

무대는 하나의 작은 세계다.
작가의 문장이 놓이고 배우의 숨결이
채워지면, 이야기 속 인물들은 비로소
우리 곁에 살아 있는 존재로 다가온다.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그려내는
인간의 창조성은 무대라는 약속된
공간 안에서 구체적인 삶의 장면으로
빛어진다. 우리는 그 작은 세계 위에
놓인 타인의 생을 들여다보며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한층 깊고
넓게 바라보게 된다.



사진 출처 국립극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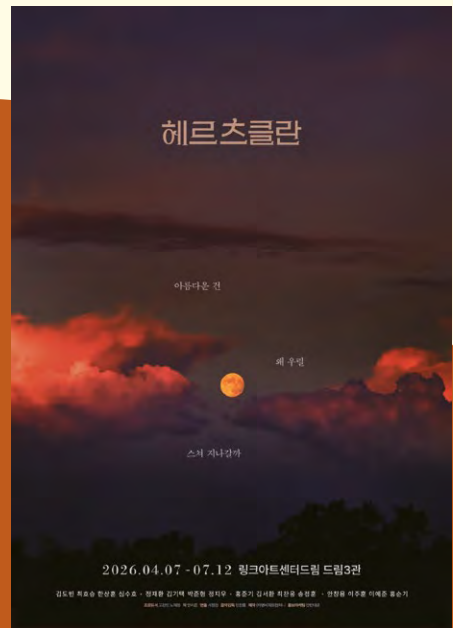


사진 출처 (주)엠비제트컴퍼니

반야 아재



기간 2026.05.22. ~ 2026.05.31.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국립극단의 <반야 아재>는 안톤 체호프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희곡 <바냐 아저씨>를 한국적 미학으로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평생 삶의 터전을 지켜왔지만 끝내 허무와 상실을 마주하게 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원작의 러시아 영지 대신 충북 영동의 한 시골 정미소로 옮겨와 우리만의 정서로 다시 썼다. 익숙한 고전이 한국적 변주를 통해 전혀 다른 질감으로 태어나는 과정은, 창조란 단순히 새로움을 만드는 일만이 아니라 오래된 이야기의 본질을 지금의 감각으로 다시 걸어 올리는 일도 됨을 보여준다. 번안과 연출은 1990년대부터 한국 연극계를 대표해 온 작가 겸 연출가 조광화가 맡았다. 조성하와 심은경, 손숙, 남명렬, 기주봉, 정경순 등이 함께 무대에 오르며, 특히 심은경의 첫 국내 연극 무대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헤르츠클란



기간 2026.04.07. ~ 2026.07.12.

장소 링크아트센터드림 드림3관

연극 <헤르츠클란>은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을 바탕으로, 인간의 내면과 성장의 문제를 무대 위에서 새롭게 풀어낸 작품이다. 독일어로 ‘마음’을 뜻하는 ‘헤르츠(Hertz)’와 ‘소리’를 뜻하는 ‘클란(Klang)’을 결합한 제목처럼, 자기 안의 목소리를 따라 진정한 자신에게 다가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엄격한 규율 아래 운영되는 신학교 헤일리히에서 싱클레어는 수습교사 데미안의 특별활동반 ‘캠프’에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두려움과 상처, 혼란을 마주하며 조금씩 성장해 간다. 작품은 소설 속 자아와 선택의 질문을 무대 위 갈등과 관계의 변화 속에서 보다 직접적인 감정으로 펼쳐 보인다. 명작 소설이 무대 위에서 어떻게 새로운 감정과 장면으로 다시 태어나는지를 보는 것 또한 이 작품의 관전 포인트이다. 3

함께 나누는 행복 코오롱 재능드림봉사단 창단



사진: 코오롱 재능드림봉사단의 첫 활동으로 진행된
손편지 봉사활동

임직원 주도로 활동을 펼쳐
나갈 '코오롱 재능드림봉사단'이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 임직원
대상 사전 설문부터 단원 모집,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첫 활동까지
그 여정의 시작을 함께해 보자.

코오롱사회봉사단

한국자원봉사문화

✕

내 재능과 관심, 아이디어가 봉사가 됩니다!

✕

✱

코오롱

재능드림 봉사단 모집

✱

✕

코오롱 재능드림(Dream) 봉사단이란?

✕

✕

내가 가진 지식, 경험, 취미, 아이디어를 살려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임직원 주도형 봉사활동 프로그램입니다.

✕

✕

시가 삶의 많은 부분을 대신하는 시대이지만,
마음을 나누고 온기를 전하는 일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합니다.

✕

☑

평소 관심 있던 사회 이슈가 있다면

☑

동료들과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면

☑

"이런 봉사, 우리 회사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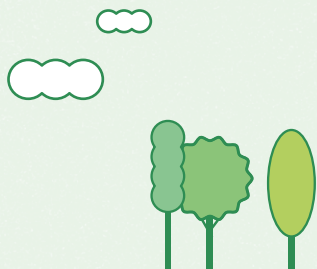
지금, 우리만의 봉사를 시작해 보세요.

다양하게 제시된 재능드림 활동 중에서 선택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코오롱 재능드림봉사단 모집 온라인 공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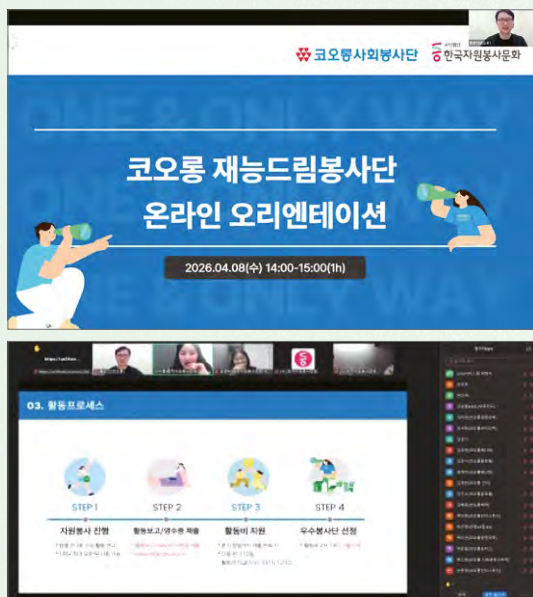
코오롱은 임직원 개개인의 재능과 다양한 관심사를 사회문제 해결에 연결하고자 하는 취지 아래 ‘코오롱 재능드림봉사단’이 새롭게 창단되어 본격적인 활동의 닳을 올렸다. 지난해 말 코오롱 사회공헌사무국에서는 전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관심 분야와 재능, 참여 니즈, 활동 의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이렇게 수집된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활동 주제와 운영 방향을 설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예체능, 멘토링 및 교육, 환경 및 동물 보호 등 폭넓고 다채로운 분야에서 원하는 활동을 선택해 참여하는 ‘선택 참여형 활동’과 함께, 세 명 이상의 임직원이 직접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획형 활동’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그 결과 전국 각지의 사업장에서 무려 100여 명에 달하는 임직원의 신청이 열정적으로 이어졌으며, 그렇게 코오롱 재능드림봉사단은 총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힘차고 뜻깊은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지난 4월 8일에는 코오롱 재능드림봉사단의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전국 사업장의 신청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창단 취지와 비전을 공유하는 소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자기 주도적 봉사활동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한 기본 교육, 그리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동 프로세스와 운영 계획 등이 상세히 안내되었다. 이어, 4월 22일에는 첫 활동으로 손편지 봉사단 활동이 진행되었다. 고민을 담은 익명의 손편지에 답장을 보내는 ‘온기우체부’ 활동을 하고 있는 (사)온기(제21회 우정선행상 본상 수상단체)와 함께 봉사 단원들이 고민 편지에 본인들의 경험과 진심을 담아 답장을 작성했다.

첫 활동을 시작으로 코오롱 재능드림봉사단은 임직원의 자발성과 재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사진: 코오롱 재능드림봉사단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코오롱제약 대전공장, 플로깅(Plogging) 캠페인 진행



지난 3월 27일, 코오롱제약 대전공장에서는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한 인근 근린공원 2곳을 무대로, '걷GO! 줍GO! ESG 실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플로깅(Plogging)'이란 조깅이나 산책을 즐기면서 동시에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직접 줍는 활동으로, 일상 속에서 가벼운 운동과 환경 정화를 한꺼번에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 활동으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한 봉사를 넘어 건강과 환경 모두를 챙기는 실천적 생활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날 캠페인에는 20여 명의 열정적인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사진: 플로깅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코오롱제약 대전공장 임직원들



사진: 코오롱제약 대전공장 플로깅 캠페인 온라인 포스터



공원 이곳저곳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쓰레기가 곳곳에 숨어 있음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참가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구석구석 환경 정화 활동에 힘을 쏟았다. 혼자가 아닌 동료들과 함께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무거울 수 있는 봉사 활동도 한결 가볍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서로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평소 업무 현장에서는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오가며 동료 간의 유대감을 높이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는 훈훈한 후기가 이어지기도 했다.



사진: 바다숲 조성 활동 후 참여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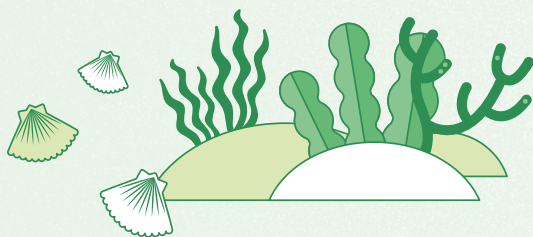
코오롱인더스트리 대산공장, 바다숲 조성 활동 진행



지난 4월 22일, 코오롱인더스트리 대산공장 임직원들은 환경재단, 한국수산자원공단(FIRA)과 함께 바다숲 조성 활동을 진행했다. 탄소흡수원 확대와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바다숲 조성 사업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고 공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바다 사막화 회복과 수산자원 증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해양 복원 활동이다. 참여 임직원들은 해양생태계와 블루카본(해양-연안 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잘피 이식체 제작과 이식 활동에 참여했다. 잘피는 연안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식물로 바다숲을 구성하는 핵심종이며 탄소를 흡수하고 해양생물의 서식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임직원들은 마지막으로 연안 정화 활동까지 함께하며 해양환경 보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사진: 잘피 이식체 제작과 이식 활동에 참여 중인 봉사자들





독자엽서

Thank you
2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에 아랑곳없이 쓰레기들
치우는 쓰레커 청년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마트, 도서관, 은행에 갈 때 주변을
돌러보며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길을 가면서
여기저기 버려져 있는 쓰레기와 담배꽂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참 시민의식이 없구나'
탓하면서 눈살을 찌푸립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청년 플로깅 크루, '쓰레커' 남이
버린 걸 줍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님을 잘 압니다.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쪼그려 앉은 수고로움과
모은 쓰레기를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 이
모든 것에도 아랑곳없이 남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 청년들의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

From. 송나영 님(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Ch 살맛나는 세상 +

'살맛나는 세상'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독자엽서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빨간 우체통에 채택되신 분에게는
'커피 기프트콘'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Thank you
1

무지개 디딤돌 멘토링 활동서점
진정성 있는 활동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지개 디딤돌 멘토링 10기 해단식 기사를 통해
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들과 대학생 멘토들이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쌓아온 유대감이
사진과 글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서로
하이파임을 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에서
단순한 교육 지원 이상의 정서적 교감이 느껴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디딤돌'이라는 이름처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진정성 있는 활동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From. 고상한 님(인천광역시 서구 이음2로)

Thank you
3

시민들의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어
서로 돕고 배려하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선한 행동을 보여준 시민들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는 시민들, 어르신들을 도운 배달 기사,
중학생들의 따뜻한 도움,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구한 택배 기사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더욱 확산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From. 박순화 님(강원 동해시 부곡2길)



제26회 '牛汀善行賞' 시상 요강

우정선행상

코오롱에서는 1999년부터 사회 각지 각 분야의 선행·미담사례를 발굴하고
봉사와 헌신의 사회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살맛나는 세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선행을 실천하여 귀감이 되는 분을 격려하는 '우정선행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금번 제26회 우정선행상의 시상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상 내역

- 대상 1인(또는 단체) 상장 및 상금 5,000만원
- 본상 3인(또는 단체) 상장 및 상금 각 3,000만원

자격 및 요건

1. 모범적인 봉사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선행으로 사회에 귀감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2. 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동일한 내용으로 수상한 경력이 없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3. 한국인 또는 한국 거주 외국인

후보자 추천

1. 일반 후보자 추천

- 추천인 중앙행정기관,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장
또는 봉사처, 봉사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협회의 장
또는 일반시민 10인 이상(후보자의 법적 친인척 제외)
 - 추천 방법 온라인 추천 오운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good-news.or.kr>)
 - 접수마감 **2026년 6월 10일(수) 18:00**(이후 제출 건은 제27회 후보자로 접수)
- ※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우편 접수 가능
- 1) 구비서류 ① 추천서 및 후보자의 공적서(양식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주요 공적 증빙자료(필요시)
 - 2) 접수처 [13837] 경기 과천시 코오롱로 11, 코오롱타워 18층 우정선행상위원회
*접수된 자료는 반환 불가하오니 주요 공적 증빙자료는 사본 제출 바랍니다.
 - 3) 접수마감 2026년 6월 10일자 우편 소인까지 유효



온라인 추천
바로가기

2. 지난 1년간 '살맛나는 세상' 책자에 선행 사연이 소개된 개인 및 단체는 후보로 자동 추천

수상자 선정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 등을 거쳐 선정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발표: 2026년 10월 초, 수상자 개별 통지 및 오운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
- 시상: 2026년 10월 말

기타

- 牛汀은故이동찬 코오롱그룹 선대회장의 號입니다.
- 공적내용에 있어 허위사실 또는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문의: 02) 3677-3195

오운문화재단

